

고위당정청협의회 - 2018.12.12. 국무총리 서울공관

이른 시간에 이해찬 대표님, 김수현 실장님,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당정청의 책임자들이 모이셨습니다. 국회에서도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의 70%이상을 집행해서 경제하강을 막고, 민생안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약간은 개선의 기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확실한 개선의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아직도 최종 타결되지 못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타결되어서 노사상생의 모델인 이러한 일들이 다른 곳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광주형 일자의 조기타결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최근에 철도, 난방,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의 사고가 잇따라서 국민들께서 크게 불편하시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급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많이 처리되었습니다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등 몇개의 중요한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경제가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당정청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내외의 어려움에 잘 대처해 가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